

군포교, "양·질적 성장 함께 이뤄야"

군종교구 3기 출범으로 살펴본 과제와 전망

제3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에 정우 스님이 취임하며 군포교가 일대 변혁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임군종교구장인 정우 스님은 통도사 주지와 총무원 총무부장, 4선의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한 명실상부한 조계종의 중진으로 수많은 도심포교당을 세운 추진력을 지닌 스님이다. 특히 일반 사병으로 복무하며 후교 황룡사와 일원사 등 군법당 2곳을 창건할 만큼 군포교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군포교 안팎의 거는 기대가 크다.

7월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군종교구 교구장 이취임식에서 정우 스님은 "군포교의 주체는 현장에서 뛰는 현역 군승들"이라며 "군승 법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그동안 군포교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들로 조계종 포교사단 군포교팀과 군승후원회, 국군불교총신도회, 국군예비역불자회, 심우회, 불교여성개발원 등 13개 모인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호석 전 농협대 교수는 "전체 400여 법당 중 군승의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하다.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우 스님은 후원체계 확립과 함께 '문화포교'로 군포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기치를 걸었다. 현재 군종교구의 연 수계인원은 10만 여 명에 달한다. 일선 군법당 개보수 문제가 있지만 양적인 성장은 궤도에 오른 상태라는 평가가 많다. 이

"군포교 주체는 군승"

정우 스님, 지원 표명

군승 위상 강화 위해

종단 관심 이어져야

포교 콘텐츠 개발 시급

제는 질적 성장이 함께 동반돼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육군의 한 중진급 군법사는 "10만 수계 중 불자로 표기하는 이는 8만 명에 불과하다. 불교 가르침보다 잭팟에 관심을 갖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개신교에서도 물질을 통해 선교하는 것에 한계가 왔다는 인식이 있다. 근본적으로 신심을 키우는 포교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일선 장병들에게 감동을 주는 포교를 위해서는 다양한 포교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고립된 생활을 통해 생기는 인성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올해 국방부 내에서 상담심리 교육이 진행되기도 하는 등 군 내에서도 감성 전력 강화가 화두로 떠올랐다"며 "심리상담, 명상 등 불교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 군포교에 문화포교를 전개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군종교구는 7월 25일 제2, 3대 군종교구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 가운데)이 3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사진 오른쪽)에게 교구기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임하는 자광 스님.

조계종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취임

25일 용산 전쟁기념관서 이취임식

군포교를 책임지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수장으로 정우 스님이 취임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7월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무지개홀에서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의 이임식과 3대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신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군포교 현장의 주체는 군법사이며 군종교구는 지원팀"이라며 "군법사들의 그늘, 울타리가 되는 군종교구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통도사 주지를 마치고 모든 일을 내려놓으며 어렵고 힘든 이와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

했다. 종단에서 군종교구장 소임을 맡기는 것을 보면 군종교구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이임사에서 "신임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활동력과 복력이 많아 군종교구 사업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승들을 도움 일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우 스님은 도심포교를 주도한 선구자로서 종단 최대의 포교조직인 군종교구를 발전시켜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1대 군종교구장을 지낸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과

총무부장 원담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정감윤 국회 정각회장, 백승주 국방부 차관, 원태호 국군불교총신도연합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우 스님은 1965년 양산 통도사에서 출가해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총무부장, 불교방송 이사, 통도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도사 서울 포교당 구름사 회주도 있다.

노덕현 기자



951호 INDEX

시상세계 부산약사선원 수행 현장 A5



종합 가산불교 대서림 14호 발간 불교 언론인 모임 '인사클럽' 창립 A3·4

신행 시각장애인 점자법요집 발간 A6

김상현 교수 추모 A7·23

2013여름특집 B1~12



SBS 편파 보도에 성난 佛心

총무원, 본사주지협 등 비판 성명... 항의 방문 이어져

지난 7월 19일 방영된 SBS 시사 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 Y'의 방영 내용에 대해 불교계가 편향적이고 의도적인 보도였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19일 방영분에서는 오여사 신내암자 자장암 전 주지의 주장으로 시작됐으며, 장주 스님의 폭로기자회견과 인터뷰가 공개됐다.

가장 먼저 반발한 것은 조계종 총무원이다. 조계종은 19일 대변인 주경 스님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SBS의 '궁금한이야기 Y'가 한국불교와 조계종을 부도덕 집단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인터뷰가 아닌 것으로 하고 카메라 없는 상태에서 종단의 소임자와 나는 얘기와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 방영했다. 더구나 도박 빚 때문에 해외로 도피한 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의 사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의 사진을 버젓이 내보낸 것은 무고한 사람을 괴롭히는 저자거리 폭력배들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이어 "자격이 안 되는 예비승려를 자장암 감원으로 위촉해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찰의 주지 직을 비롯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무책임한 폭로를 하는 자가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라고 확인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은 7월 22일 방송심의위원회에 해당 방송의 내용과 취재방식,

편집조작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접수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폭로와 관련해 실명을 방영해 종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과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문)는 7월 26일 경주 불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어 종단을 향한 비방과 폭로에 단호히 맞설 것을 다짐했다. 본사 주지들은 결의문을 통해 "분별한 비방과 폭로 행위는 분열과 불신의 그림자 속에 승단의 화합을 해치고 종도들을 분열시키는 사지충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정 보도라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채 해중세력에 현혹되어 무분별한 폭로 및 비방행위를 확대시키는 행위를 비롯해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무책임한 폭로를 하는 자가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라고 확인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제33대 집행부를 비롯해 종단의 제 기구들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해중 철결과 정법 구현에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

조계사 호법위원회(위원장 성진, 이하 호법위)는 7월 23일 SBS를 항의 방문하고 편향적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진에 대해 문책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도 7월 26일 SBS에 항의 방문하고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해 항의했다.

이와 함께 불국사와 조계종 중앙신도회도 SBS의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신승일 기자 motp79@hyunbul.com

제25회 포교대상 공모

포교원,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

조계종이 제25회 포교대상을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7월 24일 "포교를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사찰의 공로를 치하하고 불범홍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25회 포교대상 후보자를 추천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대상은 교구본사 주지와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 등 추천권자가 종단 소속 기관 및 단체, 사찰, 스님, 종단신도등록

자로서 5년 이상(대상 후보자는 20년 이상) 해당분야 포교 활동 중인 자 또는 단체다.

포교대상(종정상)과 공로상(총무원장상), 원력상(포교원장상) 등으로 나눠 시상하게 된다.

포교대상 후보 추천자는 구비서류를 오는 8월5일부터 9월9일까지 조계종 포교원 포교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포교원은 10월 중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범어가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가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 날개당 5,000원 (택배비 별도)
- 세트당 (2개) 9,000원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쳐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